



설화와 기독교의 희생모티프에 관한 비교 고찰

강형선¹⁾

1. 서론

요즘 기독교계에서는 내년에 있을, 평양대부흥운동을 위한 기념행사 준비에 바빠 있다. 1903년 원산의 한 바닷가에서 감리교선교사였던 토마스 하디의 통렬한 회개가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내·외적인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종교적 감성을 격렬하게 깨웠고 이는 곧바로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독특한 제도들을 결과하였다.²⁾ 이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이룩하여 선교 100년의 현 시점에 세계 10대 교회 중에 무려 일곱 교회를 한국이 차지하였고 선교사 파송면에서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80년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을 연구하고 세계교회가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교회성장학'이라는 생소한 용어도 등장하게 되었다.³⁾

어느 종교이든지 선교 초기에 선교지의 민족문화와 충돌현상을 빚게 된다. 충돌의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토착화'이다.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문화에도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접촉점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 이상한 말이 아니다.⁴⁾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도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홍수와 관련된 설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극히 작은 예에 불과하다.⁵⁾ 문화인류학자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는 그의 책 「황금가지」에서 모든 인간이 '본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비슷한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매우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즉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여길 정도로 고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기독교는 외적인 면에서는⁶⁾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토착화에 성공한 좋은 예와 그렇지 않는 하나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유독 한국에서의 이렇듯 괄목할 만한 성장 배경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신앙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기독교와 닮은 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기독교는 외관상으로는 제국주의의 힘에 편승해 낯설게 보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친근감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친근감을 정진홍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혀 주고 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이같은 사실 첫째로, 하늘경험이 지닌 지고존재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으리라는 사실을 상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하늘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잠재적인 것으로 있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의 신은 그것이 지닌 배타적 독선성으로 인하여 전통 문화의 파괴 없이 자신을 전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 무속신앙에서 이루어지는 무당에 대한 역할기대 곧 중보자적 개념이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예수의 상징성을 읽는 데 무리를 없게 한 근본적인 소지였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준다. 사제를 초월과 내제의 매개자로 여긴 경험이 낫설지 않았기 때문에 관음과 미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권위를 힘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중보자인 역사적 인격(예수) 테오스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⁷⁾

정진홍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의 전통적 신앙 형태 자체 속에 이미 기독교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학 내에서도 가능한 논의일 것이다. 특히 설화가 가지고 있는 민중의 맥락성을 생각한다면 기록문학보다 구비문학 안에 그러한 기독교적 유비, 즉 친근함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현재 한국인들 일반의 정신적 지형도 속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⁸⁾ 지위를 획득하게 된 맥락을 일부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소논문은 한국의 설화의 모티프 중에서 기독교교리와 연관성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희생'의 모티프를 찾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속적 구원교리와 상호 비교하도록 하겠다.

2. 본론

(1). 희생설화에 나타난 희생모티프

설화는 구비문학의 한 양식이다. 그러므로 민중을 통한 언어예술이기에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식이 드러난다.⁹⁾ 이러한 집단적인 의식은 곧 민족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민족적인 정서는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함이 있는 반면에 프레이저의 말처럼 '본질적 유사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자아를 희생하고 타자를 살리는 류의 이야기는 인류 모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지만 유독 우리 민족의 헌신과 희생의 미덕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하다.

우리 설화에 있어서 희생의 모티프에 대해서는 최내옥 교수가 효를 중심으로 희생 전설의 변이와 구조를 고찰한 바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이상일 교수의 변신에 관한 고찰도 관련될 수 있다.¹⁰⁾ 넓게 보면 효행의 모티프나 보은의 모티프도 희생의 범주에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희생모티프를 살펴보기 위해 죽음이 매개가 되는 경우의 희생설화만을 선택하여 특징을 단편적으로 펴보겠다.

통상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3분하면, 「한국 대표 야담 전집」¹¹⁾에 수록된 323편의 전설 가운데 희생되어 주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24편 있다. 희생자의 신분은 대부분 평민들이나 양반계급도 상당수 있는데, 양반계급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다.

신화 부분의 자료는 「삼국유사」에 실린 건국신화와 「한국무가집」¹²⁾에 수록된 것으로 그 중에서 희생되어 죽는 내용이 밝혀져 있는 것은 풍어제 무가중에 심청이에 관한 사설과 바리공주가 있는데 이 둘은 모두 희생의 명분이 효심이라 할 수 있다.

민담의 경우는 임동권의 「한국의 민담」에 수록된 152편 가운데 희생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가 6편 있다. 이 중에 1편인 '우렁부인'에서는 부인을 사또에게 빼앗기고 분을 참지 못한 남편이 기둥에 부딪쳐 자살하고, 부인 역시 정절을 지키느라고 굶어 죽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나머지 5편은 모두 동물이 사람에게 입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 희생하여 은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 등장하는 동물은 멧새, 비둘기, 까지, 두꺼비, 개 등이 있다.

희생설화에 나타나는 희생의 명분은 보통 여인들이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절대적이고, 소속 집단의 안녕 도모를 위해 수동적으로 제물이 되는 경우와 효심에서 능동적으로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물론 희생을 자처하는 능동적인 경우이다. 「한국 대표 야담 전집」에 수록된 희생전설 가운데 개인이 아닌 집단을 위해 능동적으로 희생을 자처하는 내용이 4편이 있다.

① 벽골제(전라북도 김제) - '바뀌어진 딸'

신라때 벽골제 방축을 새로 수축하는 공사에 조정에서는 원덕량을 보내 김제 태수 유품과 함께 일하도록 하였다. 인근 각 고을에서 부역 나온 수천명의 백성들은 일을 함녀서 인근 연못속의 청룡의 노여움을 사 방죽이 터지지 않게 처녀 한 사람을 잡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덕량은 절대 반대하였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어느날 밤 태수의 딸 단야낭자가 원덕량에게 찾아와 애처롭게 사랑을 호소하였다. 원덕량은 공사에 집중해야 할 까닭에 마음을 줄 수 없다고 하나, 단야는 원덕량이 서라벌에 두고온 월내낭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원망스러워 아버지에게 월내를 처치해 달라고 애원하며 병석에 눕게 되었다.

어느덧 일년이 지나자 서라벌의 월내낭자가 김제까지 약혼자인 원덕량을 찾아와 태수의 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동안 비가 내려 거의 다 되어 가던 뚝이 무너졌다. 태수는 부인과 딸을 불러 놓고 뚝이 처녀의 희생제물 없이는 안될 것 같으니 이곳에 와 있는 월내낭자를 남몰래 희생시키면 일거양득이라고 하며 일을 꾸민다.

단야는 아무도 모르게 뽕뽕 묶여 생매장될 월내를 생각하며 잠을 못이루다가 월내의 방을 들여다 보니 그 모습이 너무 우아해 스스로 부끄러워져 월내낭자의 방에 들어가 방을 바꾸어 쓸 것을 요청한다.

다음날 아침 월내 대신 단야가 생매장된 것을 알고 소동이 난다. 단야의 은덕으로 벽골제는 완성되었다.

② 태종우(경기도 광주) - '비를 부른 불길'

태종대왕 말년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식량은 물론 목을 축일 물도 없는데다 괴질까지 만연하였다. 임금은 관찰사들을 시켜 백성을 구제하라 명하나 방도가 없고 왕의 꿈에 자꾸 괴질로 죽은 백성들의 망령들이 나타나 울부짖는다.

왕은 하늘에 비와 괴질이 사라지기를 간구하는데 이런 재난은 왕이 부덕한 탓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다. 왕은 몸져 눕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백성을 재난에서 구하기로 결심한다.

문부백관들의 애원을 뿌리치고 왕은 궁중에 높이 쌓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앉아 불을 붙이게 하였다. 왕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계속 하늘에 비를 간구하니 갑자기 돌풍이 불며 비가 쏟아져 사납던 불길이 삼시간에 꺼져 왕은 무사하고 온천지는 빗 속에 덮였다.

그 뒤부터 해마다 이날이 되면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

③ 가마고개(경상남도 하동) - '옹고집대결'

종횡골에는 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조선비네가 살았고 안갯골에는 이퇴계 선생의 학통을 이어 받은 이생원네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서로 딸과 아들이 있어 매과가 중매를 했지만 양가의 학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견원지간처럼 지냈다.

어느날 양가의 딸이 탄 가마가 고개마루에서 마주치게 되자 서로 앞뒤를 다투다가 낭떠러지 옆 고개길에서 싸움이 벌어져 서로 조상을 들먹이며 싸우다가 그 자리에 초막을 치고 연사흘을 유생들과 양쪽 신랑측까지 동원되어 다투고 있었다.

그러자 지친 신부들은 가마 속에서 그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다 생각다 못해 이쪽 신부가 저쪽 신부에게 쪽지를 보냈다. 쪽지에는 “우리 양쪽이 맞서게 된 불씨는 우리 딸들에게 있으니 우리가 죽어지면 대결은 끝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절벽 아래 강으로 투신코자 하니 그대도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 뒤를 따라 양가의 가문과 학문의 명예를 구제해 드립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얼마 후 두 신부는 가마 밖으로 나와 치마폭에 돌덩이를 싸안고 절벽 아래 강으로 몸을 던졌다. 파당싸움만 하던 그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 일이 있는 후 사람들은 이 고개를 가마고개라 한다.

④ 상여바위(경기도 용인) - '양갓음'

수정산정에 지름이 석자나 되는 둥근바위를 가지고 공기돌 놀이를 하는 도사가 있었다. 어느날 한 청년이 이 도사에게 무술을 배워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찾아왔다. 도사는 여러 가지로 타이르며 복수심을 버리도록 훈계하며 무술을 가르친다.

얼마후 남장을 한 남자가 도사를 찾아와 무예를 배우기 원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복수하러 올 사람을 방비하기 위함이었다. 도사는 바로 그 청년과 이 처녀가 원수지간임을 깨닫고 모두를 제자로 삼아 원한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무예가 단련될수록 오히려 복수심이 강해지고 원수지간인지도 모르고 서로 원한에 불타는 것을 본 도사는 크게 실망하고 탄식하며 타계를 결심하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갑자기 비바람이 치며 천둥이 치더니 도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사가 가지고 놀던 바위돌이 마치 상여처럼 여러 빛깔을 내었다. 두 제자는 이 바위를 보며 사람이 죽어 상여에 실리면 도든 것이 그만인 것을 깨닫고 원한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2). 효행설화에 나타난 희생모티프

구비문학이 기록문학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중에 하나는 소설의 출현이다. 소설의 발생과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설화에 연원을 두고 발행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¹³⁾ 효를 강조하는 고대소설 중에 단연 으뜸은 '심청전'일 것이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효의 백미라 아니할 수 없다. 자신이 편안하게 효도한다면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어 시공을 넘어 전해지겠는가? 또한 부모가 별일이 없다면 효도할 사건이 생길 리도 없다. 부모가 임종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부모 입에 넣어주었더니 소생하였다는 단지효행이 있는가 하면 허벅지 살을 베어서 봉양한 할고효행도 있다. 한 겨울에 잉어를 구하러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울었더니 잉어가 솟아나와서 부모님께 드려 병을 낫게 한 割永求鯉 효행, 한겨울에 죽순을 얻기 위해 울었더니 눈위에 갑자기 죽순이 솟았다는 읍죽효행 등등은 자신의 희생과 고생과 노력에 감동한 대상이 기적을 일으켜서 효도할 여건을 만들어 준 것들이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는 희생, 아내를 팔아서 부모 제사를 지내는 희생, 심지어 효자 자신이 죽어서 효도를 하는 자기희생의 예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효행설화 모티프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산삼동자 설화를 들 수 있다. 늙으신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자 유명한 의원이 효자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가마솥에 삶아서 어머니를 드리면 낫는다고 하매, 효자는 눈물을 머금고 서당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을 잡아 삶아 어머니를 드렸더니 병이 즉시 나았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또 들어왔다. 이상하여 가마솥을 열어보니 먼저 온 아들은 산삼이었다. 산신령이 효심에 감동하여 산삼을 아들로 만들어서 먼저 집에 보냈던 것이다.¹⁴⁾

(3). 기독교의 희생 모티프

기독교는 흔히 대속(代贖)적 희생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종교로 말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무수한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다. 일종의 짙막한 설화의 모음이 당시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사이에서 해석을 통해 청중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희생의 모티프는 아브라함의 인신제사와 율법 속에 나타난 희생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는 인물이다. 창세기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¹⁵⁾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고 근처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름지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삶으로 설교하지만 사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다.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더 많이 드리라거나 더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에 의해서 필요를 공급받는 신이라면 이미 절대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부분의 강조는 '대속'의 의미이다.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는 대속(代贖)의 의미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희생제사를 통해 더 분명해진 다. 인간의 죄는 제물로 바쳐진 희생제물의 고통으로 속죄된다. 이 무죄한 중재자가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통을 겪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죄를 속죄한다. 구약성경 레위기 16:22~23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염소 두 마리를 드리는데 이 중 하나는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이라 이름 붙여 광야로 내보낸다. 이를 아사셀 염소라 부른다.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광야로 나가는 염소가 유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다. 이를 크파룻(속죄)이라 하는데 최근에도

유대교에서는 크파롯을 가장 거룩한 속죄예식으로 행하고 있다.¹⁶⁾ 구약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제의적인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약과 구별되는 신약, 즉 옛 언약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으로서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스라엘에서 시행되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인간의 인성을 성(聖)스럽게 전환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 희생제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면 왜 이런 방식의 처참한 희생제사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좀 더 고상한 구원론이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세계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전지전능성이 왜 유독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외면되는 것인가? 최근의 미국 영화배우 멜 깁슨이 영화화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F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받은 24시간을 지나치게 리얼하게 그려냄으로써 찬반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충격적인 화면으로 인해 충분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도 다소 있었다. 그러나 일단 그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둔감해 있는 현대인의 통념을 깨뜨리는 충격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혈이 낭자한 화면을 보면서 ‘설마!’를 연발한다. 십자가라는 것이 악세사리로서 기능하고 있지, 사형틀이라는 의식이 지워진 것이다. 구약의 희생제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의 처참함은 인간의 죄가 가지고 있는 처참한 결과를 함의한다. 희생제물이 죽은 이유도 죄없는 그리스도의 고통스런 죽음도 인간의 죄에 기인하고 있다는 함의인 것이다.

(4). 설화와 기독교적 희생 모티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성.

우리나라의 희생설화나 효행설화의 구조를 간단히 도식화한다면 ‘문제-희생자의 개입-화해’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희생설화에서 방죽이 터지는 문제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나, 가문끼리의 분쟁, 원수지간의 남녀 사이에 모두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 효행설화 역시 일종의 문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효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희생의 모티프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구약의 번제에서 짐승이 조각나고 피를 흘리며, 그 모형이 그대로 그리스도로 이어져 십자가의 형틀에서 마치 짐승의 그것처럼 피를 흘리는 이유는 인간의 죄의 처참함을 암시한다. 희생이 필요한 궁극적인 원인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죄’라는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성격이 같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손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손상, 태종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의 관계의 손상, 가문과 가문과의 관계의 손상이 결국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관계의 손상이 한쪽의 손해가 없이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자책감이긴 하지만 단야가 월래당자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된 경우나, 태종이 자신을 불사르려고 하는 행위나, 두 신부의 투신과 원수지간 남녀를 위해 도사가 타계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손상을 중재하기 위한 기독교의 희생모티프와 전혀 낯설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앞에 한 사람이 개입하여 치룬 헌신적 희생은 하나의 화해를 결과한다. 단야의 은덕으로 벽골제가 완성된 것이나,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쏟아지거나, 두 가문의 화해와 자

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들의 효행으로 인해 늙으신 어머니가 회복되는 것을 일종의 화해인 셈이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 하늘과 땅과의 화해, 가문과 가문과의 화해로 이루어진 해피엔딩이다.

그것은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바와도 같다. 물론 성경은 계시¹⁷⁾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주적인 해피엔딩이다. 즉 '부활'의 메시지로 화해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다시 돌려받았다. 죽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부활인 셈이다.¹⁸⁾ 죽이기까지 작정을 했으니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죄의 대가로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희생의 대가로 부활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해피엔딩인 것이다.

3.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 설화 중에 희생의 모티프를 가진 설화의 특성과 기독교의 희생모티프를 비교하여 보았다. 기독교인이 천만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결과적이지만 같은 동양이면서도 일본보다 훨씬 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이유를 한국인의 의식의 심층부에 존재해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낯설지 않는 문화적 동질성 때문임을 부족하나마 살펴해보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부분이다. 선교사 헐버트는 단군신화를 통해서 신(GOD)에 대한 적절한 번역 용어로서 '하느님'을 선택하면서 단군신앙을 한국에 고유한 유일신 신앙의 한 면모로 보았다.¹⁹⁾

그러나 희생의 모티프가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희생 그 자체는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자기부인을 통한 구원, 자기를 버림으로 타자를 행복하게 하는 이타적인 인생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기독교의 경향이 자기부인이 없는 영광(No Cross! No Crown)의 기복신앙으로 편향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 회피'(1906-1945)라는 젊은 신학자는 그러한 신앙을 '값싼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이라고 못박았다.

설화와 기독교의 희생모티프가 가지는 유사성을 토대로 현대 한국 기독교의 현재를 해석한다는 것이 부족하기는 하지만²⁰⁾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인 토양 위에 기독교라는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민족의 기저와 충돌되지 않거나 낯설지 않은 부분은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지평 속에서 과거의 지평을 연결하는 작업이라는 면에서 의의를 찾고 싶다.

〈참 고 문 헌〉

김태곤, 韓國巫歌集, I·II·III·IV, 집문당, 1971-1980.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서울, (주)지식산업사, 1992)

閔丙勳, 韓國代表野談全集(전10권), 민중서관, 1980.

박정세, "희생설화와 희생 양상", 韓國民俗學(제17집), 民俗學會,

이상국, "한국기독교의 단군신화 이해연구"(목원대 신학대학원: 2003),

정진홍, 「하늘과 순수와 상상」 (강: 서울, 1997),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연구」 (대구:계명대 출판부, 1994)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서울:한양대한국학연구소, 1984),Vol 5,
 최래옥, “한국흥수설화에 대하여”, 민속학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 9집 (서울:민속학회, 1976)
 최운식 외, 「설화·고소설 교육론」 (서울: 민속원, 2002),

-
- 1) 양양 수리교회 목사
 - 2) 새벽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와 같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독특한 형식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 3) 한국갤럽이 97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음으로 개신교인의 비율이 타 종교인의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비율은 20.3%이며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18.3%와 7.4%였다. 선교가 시작된 지 1백 12년만에 일어난 일이다.
 - 4) ‘접속점’에 대한 좋은 예로는 선교사로서 뉴기니아의 사위부족에게 선교했던 돈 리차드슨이 쓴 「화해의 아이」를 추천하고 싶다. 사위족은 보다 더 기막힌 배신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며 인육을 먹고, 해골을 베고 자는 식인 습성이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최고의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리차드슨은 그들에게 선교의 접속점인 구속유비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영적인 진리를 특정지역의 풍습에 적용하는 원리가 그것이다. 사위족과 주변 다른 부족들은 늘 피흘리는 배반과 보복을 하지만 때로, 화해를 할 때 자신의 아이를 상대방에 주는 “화해의 아이”를 보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거나 하면 그들의 화해도 끝이 났다. 리차드슨은 이에 착안해 화해의 아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후 그들에게 식인습성과 전쟁이 그쳤다는 자서전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
 - 5) 최래옥, “한국흥수설화에 대하여”, 민속학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 제9집, (서울: 민속학회, 1976) 86쪽.
 - 6) 내적인 면, 즉 내실의 측면에서는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7) 정진홍, 「하늘과 순수와 상상」 (강: 서울, 1997), p. 100.
 - 8)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통계를 20-25%로 보고 있다. 1/4이던 타 종교에 비해 어느 정도 확고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9)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서울, (주)지식산업사, 1992), p33.
 - 10) 박정세, “희생설화와 희생 양상”, 韓國民俗學(제17집), 民俗學會, 1984. pp. 65에서 재인용.
 - 11) 閔丙勳, 韓國代表野談全集(전10권). 민중서관. 1980.
 - 12) 김태곤, 韓國巫歌集, I·II·III·IV, 집문당. 1971-1980.
 - 13) 최운식 외, 「설화·고소설 교육론」 (서울:민속원, 2002), p. 26.
 - 14)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서울:한양대한국학연구소, 1984),Vol 5, pp.168-170.
 - 15)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린다.
 - 16) 유대인들은 매년 대속죄일 하루 전에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이 속죄예식을 하는데 주로 닭으로 한다. 산 닭을 들고 머리 위에 여러 번 돌리면서 속죄 기도문을 외운다. "이 닭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나는 신의 은총 속에 편안히 살리라." 속죄예식 직후 닭의 목을 자른다. 염소를 대신한 이스라엘 종교유대인들에겐 아주 거룩한 종교예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애호가들에 의해 이런 의식들이 많이 제한받았다고 한다. 속죄예식 장소에 둘러선 동물애호가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닭을 학대하지 말라” 라는 구호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고 한다.
 - 17) 신적인 일로, 이제까지 닫혀진 것이 열린다는 의미(Revelation)
 - 18) 신약성경 히브리서 11:17 -19.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19) 이상국, “한국기독교의 단군신화 이해연구”(목원대 신학대학원: 2003), p. 26. 단군신화에 나타난 환인-환웅-환검의 십일신론은 기독교의 성부-성령-성자로 구성된 삼위일체론과 유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단군을 ‘하느님’(환인)을 예배한 한국원시 유일신교 신앙의 제사장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유비적 해석은 한국 선교의 성공과 급성장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교회사가들은 보고 있다.
 - 20) 「한국민간신앙연구」 (대구:계명대 출판부, 1994)라는 책에서 최길성은 현대 한국교회의 성장을 무속신앙과 비교하기도 했다. 즉, 부흥사들이 부흥회 하는 모습을 전통 무속인이 굿을 통해 흥을 돋고 한을 풀어주는 방식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았다.